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15년 11월 24일 (火)

문의 :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010-9100-8838), 조병옥 전농 사무총장(010-6566-2446)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5년 11월 24일(火) 12:00, 흥사단 강당

기자회견 식순

사회 :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묵상

여는말 : 이영선 신부 (가톨릭 농민회 전국지도 신부)

백남기 농민 가족 편지글 낭독

각 단체 대표 발언 : 농민 / 소비자생협 / 시민사회 / 여성 / 노동 / 민중

사업계획 발표 : 손영준 총장 (가톨릭 농민회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1. 발족 취지

: 2015년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농산물 가격보장, 농생존권 쟁취) 참여 후 광화문으로 이동 중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가톨릭농민회 회원)이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 분사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 진압은 경찰의 공권력이 무고한 농민을 물대포의 직사로 쓰러뜨리고, 또 쓰러진 농민에게 20초간이나 조준 살수하고, 구조하는 사람들과 구급차에게도 마구 물대포를 분사하는 등 도저히 민주사회의 공권력이 감히 자행할 수 없는 민행을 저지르고도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비정상적 한국사회 단면과 권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 농민대회(11/14) 당일 밤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 대회의 요구(농산물 가격(농민생존권)보장, 노동개악, 세월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저히 가리고 오직 과격 폭력시위만이 존재하는 대회였다고 규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 현안(민중총궐기 4대 요구 등)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백남기 농민의 명예회복 등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 집중할 대책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따라서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종교계, 노동, 소비자 생협, 여성, 환경, 시민사회 등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동의되는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대책기구를 제안하였고, 이에 취지에 동의하는 101개 단체가 모여 오늘 발족을 선언합니다.

2.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귀농운동본부, 국민농업포럼, 가톨릭농민회(우리농)담당사제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전선,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설립을위한추진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알바노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신학연구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여성환경연대, 양수심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예수살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노동사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촌목회자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철연,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장그라운드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유니온, 청년자파, 청년하다,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협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101개 단체)

3. 활동 목표

- ① 국가폭력 진상규명
- ② 대통령 사과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 ③ 경찰청장 등 국가폭력(공권력의 폭력진압) 책임자 엄중 처벌
- ④ 물대포 방지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 ⑤ 백남기 농민의 명예회복

4. 주요 활동

- 진상규명 활동 (고소 고발, 법적 대응 등)
- 국가폭력 근절 재발방지 대책 수립 활동 (토론회, 캠페인, 청원운동 등)
- 매일미사, 촛불문화제, 집회, 기자회견, 선전홍보 활동 등
- 국민모금
- 활동목표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5. 사업계획

- 서명운동
: 대책위 명의 서명용지 배포
: 1차 마감(12/5). 선전활동의 주요 방편으로 추진.
: 전국 각 지역,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집중 선전활동
-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및 책임자 처벌 농성장 운영 (마로니에 공원)
-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 제보센터 운영
- 집회 개최
: 11/28(토) 등 매주 대책위 주최 촛불문화제 (수도권 서울 집중, 전국동시다발)
- 그 외 활동목표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6. 기자회견문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11월 14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사살수에 무참히 무너졌다.
국민의 절규는 차벽에 막혀 절망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선량한 농민은 두개골이 뭉개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자비한 진압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실도 아니고 정당방위는 더 더욱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되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력에 의해 발생한 계획적이고 필연적 사건이다.
그리고 경찰의 머리속에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부단히 키워 낸 권력자들이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 대하듯이 하는 정치권력은 이 비극의 뿌리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 생존권을 외치는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거짓과 음해의 말을 쏟아냈다.
박대통령 옆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흔이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토해 내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갖는 국민을 잔혹하게 몰아붙여 왔다.
정부 시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흔이 없고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북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대국민 적개심으로 무장한 공권력은 비극의 집행관이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11월 14일 민중대회를 대회 전부터 방해하고 폭력시위 운운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리고 당일에는 3만명의 경찰과 수백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청와대를 둘러싸고 잘 훈련된 방식대로 국민들을 제압했다.
직사살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머리에 명중했고,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쫓아가며 내리쬐고,

구급차에도 쓰아뒀다. 실수가 없었고 한 점 인정도 없었다.
이것은 대국민 전쟁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피로 얻은 교훈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대하면서 불통과 독재가 부활하는 어두운 시대를 막아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고통앞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고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미 확인된 사실 앞에 궁색하게 변명하지 늘어놓지 말고 사퇴하여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고통속으로 내 몬 살인진압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 활동을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연대해 벌여낼 것이다.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고, 백남기농민을 살려내는 생명과 평화의 숭고한 몸짓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 사건 경과 및 백남기 농민 약력

1) 사건 경과

① 사건발생과 병원이송 경과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오후 3시 보성농민회 분들과 함께 농민대회 장소(서울 남대문) 도착, 농민대회 집회 후 17시경 같이 온 농민들과 함께 종로1가 을지로 등을 거쳐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도착.

- 18:56:11 살수차 피해자 백남기 농민 얼굴 정면을 향하여 최초 분사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정조준)
- 18:56:12 살수에 의하여 머리를 숙이면서 바닥에 뒤로 넘어짐.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얼굴을 향하여 정조준하여 살수)
- 18:56:12~17 넘어진 피해자 백남기 농민 얼굴을 향하여 살수 계속, 1미터 가량 뒤로 쓸러 내려감.
- 18:56:17~32 넘어진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사람들과 넘어진 백남기 농민을 향하여 계속 살수.
- 넘어진 백남기 농민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불명 상태

(이상 목격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 엔티엔뉴스 이종원 기자, 민중의 소리 김주형 기자 촬영 동영상 34초, 공무원신문 김상호 기자의 스틸컷 70매, 엠티엠뉴스 이종원 기자의 동영상, 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자 진술, 민중의 소리 오민애 기자 진술)바로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김상호 기자는 18:57:00 경 취재를 중단하고 쓰러진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다른 세명과 함께 옮기기 위하여 접근하였고, 김상호 기자는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왼쪽팔과 목을 받치면서 반듯하게 옮기는데 협조함.

그 당시 김상호 기자는 백남기 농민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직접 보았고 긴급하여 '의사 의사'라고 여러 차례 외침. 의사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사람은 백남기 농민의 동공을 스마트폰으로 비추어보고 목 부위에 맥박을 확인하면서 말을 시켰는데 백남기 농민은 의식불명.

-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차는 19:08:00경 현장에 도착, 백남기 농민은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이송됨.
- 현재 뇌 수술 후 매우 위중한 상황임.

2) 백남기 농민 약력



1947년 8월 24일(음력)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출생

1963년 2월 - 광주서중학교 졸업

1968년 2월 - 광주고등학교 졸업 (17회)

1968년 3월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입학 (68학번)

군복무

1971년 10월 - 위수령 시 시위혐의로 1차 제적

1973년 10월 15일 - 교내에서 유신 철폐 시위 주도

1974년~1975년 - 수배 중 명동성당에 피신

1975년 - 전국대학생연맹 가입 및 2차 제적

갈멜 수녀원 잡부 1년, 일흥농원 포도원 1년, 갈멜 수도원 수도사 3년

1980년 3월 - 복교

1980년 - 어용 학도호국단을 철폐하고 재건 총학생회 1기 부회장 역임

1980년 5월 8일 - 박정희 유신잔당(전두환, 노태우, 신현확) 장례식 주도

1980년 5월 15일 - 서울의 봄 때 의혈중앙 4,000인 한강도하 주도 (흑석캠퍼스에서 서울역까지 도보 행진)

1980년 5월 17일 - 군부 계엄 확대 조치로 기숙사에서 계엄군에 체포

1980년 7월 30일 - 중앙대학교 퇴학 처분(3차 제적)

1980년 8월 20일 - 수도권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1981년 3월 3일 - 3·1절 특사로 가석방

1981년 - 고향 보성으로 귀향

(수도작, 낙농업, 밭농사 등)

1981년 11월 - 박경숙(올리아나)님과 결혼

1983년 - 정치활동 규제자에서 해금 및 복권

1986년 - 가톨릭농민회 가입

1987년 - 가톨릭농민회 보성, 고흥협의회 회장

1989년~1991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

1992년~1993년 -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

1992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준) 주도

1994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

2014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 동지회 회장

2015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

* 부인 박경숙(올리아나)님과 슬하에 1남 2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행사 중 폭력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후 의식불명,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투 중



87년 고흥 해참만 염수피해 보상투쟁(고흥군청, 경찰서앞) 농성

